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는 스마트 상근샘입니다.
자, 대학으로 가는 길 여러분들 열심히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강남인강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짹짹 깔아드렸습니다. 대학으로 가는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자,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일곱 번째 시간은 나만의 학생부를 만드는

비법 중의 하나인데 바로 교과세특과 더불어
중요한 파트라 할 수 있는 창의적 체험 활동편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전 시간에 했던 교과세특에
비해서는 요즘 분위기 자체가 창의적 체험 활동

파트는 점점 약간 축소되고 있는 경향은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창의적 체험 활동은요.

학생부 내에서 교과세특 만큼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파트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파트기도 합니다. 자, 일단 창의적 체험활동은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자율활동. 학교와 학급 행사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는
공간이죠. 동아리 활동입니다. 설명해서 뭐합니까?

말 그대로 동아리 활동입니다. 봉사활동은 여러분들이
교내외에서 한 봉사활동을 기록하는 공간이고요.

진로활동 역시 여러분들이 진로활동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선생님들이 기재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총 4가지 공간을 우리는요.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2019 학생부 기재 요령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글자수가 대폭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렇죠? 자율활동은 1,000자에서 무려 50%
삭감된 500자입니다. 동아리 파트는 그대로 500자이기는

하지만 자율동아리 파트가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봉사활동은 아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2, 3학년 같은 경우는
그대로 가요. 그리고 진로활동 역시 1,000자에서

300자가 줄어든 700자로 줄어들게 됩니다. 굉장히
아쉽죠. 아쉽습니다. 이 500자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교과세특도 500자이기는 하지만
교과세특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많잖아요.

8과목 같은 경우는 4,000자가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경우는 활동이 되게

많거든요. 얼마나 행사가 많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사는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한 활동이 많잖아요.

그러한 활동을 적기에는 이렇게 변경, 이 1,000자, 500자도 굉장히 그렇게 많은 자수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활동만 많이 적었어요. 모두 다 적히는 활동 말이죠. 그런데 500자입니다. 선택과 집중 하셔야 됩니다.

어떤 활동을 뺄 건지, 어떤 활동에 집중할 건지 여러분들이 미리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글자수 이렇게 바뀌었어요. 굉장히 창체 활동이 축소됐습니다. 자, 첫 번째 학교와 학급

활동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주는 자율활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국대는 자율활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쭉 나오시죠. 임원활동 경험 자체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리더십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직책을 맡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대요. 중요한 건 작다고 생각되는 역할이더라도 충분한 역할 활동을

하면 좋다고 평가를 합니다. 즉, 학생의 주도성과 책임의식 등이 드러날 수 있는 기재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자, 6개 대학이 공동으로 발간한 학종 101가지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아까 나왔었던 주도성, 적극성이죠. 행동변화와 성장을

보여주면 개별화되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여기서 개별화를 얘기할까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생부 내에서의 자율활동은요. 개별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개별화가 정말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학교 행사잖아요. 학교 행사 여러분만 참여하는 건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학생이

들어갑니다. 학급활동이요. 학급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활동 자체는 굉장히

동일해요. 거기서 개인을 드러내지 않으면 기재되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활동이라 하더라도요.

기재되는 내용이 동일하다? 입시학적으로는 가치가 제로에 수렴된다고 보시면 돼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13명 이상의 학생 중에 동일한 내용의 학생부 내용이 있으면 바로 블라이드 처리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개별화가 되지 않는 활동은요. 학생부 입시에서 봤을 때는 평가할 만한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절대로 자율활동은요. 학교 자랑, 학급 자랑을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학급 활동, 학교 활동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떠한 점을 느끼고

배웠는지,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이

성장했고, 어떠한 면이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나중에 이런 활동에 연결이 되는 활동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기재하는 공간이에요. 제가 방금 얘기한 게 뭐니까?
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개별화된 내용이 들어가라는 거죠.

단순하게 어디어디에 참여했다. 엄청 싫어합니다.
자율활동 행사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요.

같은 행사에 동일한 내용에 그것도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활동입니다. 개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Ctrl+C, Ctrl+V가 될 수밖에
없는 활동이에요. 왜냐하면 기재는 담임 선생님이 하시는

파트기는 한데 담임 선생님들이 그 행사에서 그
활동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보시기가

힘들죠? 수업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요. 특히 담임
선생님과 없는 공간도 많잖아요. 수학여행, 체육대회.

개별화된 활동을 해야겠죠. 개별화된 활동을 뭘 할지를
생각해보셔야 되고요. 그거를 기록지에 잘 남겨서

담임 선생님께 드려야겠죠. 학기 말이 아니라 그때 그때
그때, 학기 말에 한꺼번에 제출되는 자료의 단점은

선생님들의 기록이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활동을 그대로

적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그때그때 한 활동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된다면 신빙성도 있게

되고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평상시에 관찰과 기록을
하시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학생부 관찰에 용이한 그런

활동을 하시게 되겠죠. 단순한 참여 기재는요. 안 하느니만
못한 기재입니다. 글자수만 늘려서 정작 중요한

부분을요. 팩스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골칫덩어리가
되기도 합니다. 보통 이렇게 대부분 돼 있어요.

전교 학생회 봉사차장으로 다양한 학생회 활동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였음. 그럴듯하죠. 이거를 봉사차장이 아니고

뭐 하계차장, 선도차장으로 바꿔보세요. 차이점이
있어요? 없죠. 다양한 학생 활동에 참여했다면 도대체

어떤 활동에 참여했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활동 속에서 이 봉사차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봉사활동 차장으로서
학생회 활동에 참여를 했다.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어떤 노력을 했는데요?
리서치 활동을 했습니까?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스티커 붙이기 활동을 했습니까? 그리고 한 결과.
활동하면 뭐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리서치를

했으면 이 결과를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가 나와
줘야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불행하게도 이렇게

자율활동에 적혀요. 봉사차장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전국에 얼마나 많은 봉사차장이 있는데요. 전국에만

2,300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매해 전교회장만
2,300명이 나와요. 그렇죠? 전교부회장도 있죠.

2,300명입니다. 합해서 4,600명이에요. 학년장도
다 있어요. 학년장도 올라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회장, 회장, 학년장만 해도, 보통 학년장 2명씩
뽑잖아요, 한 명씩 뽑든가. 이것만 하더라도

10,000명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각종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 직책을 달고 있는 학생들이요. 매년 수만 명이

나옵니다. 수만 명이 나와요. 차별화가 돼요? 안 되죠.
직책이 주는 메리트는 이제 없습니다. 오히려 직책은

있는데 활동이 없잖아요. 마이너스입니다. 애는 뭐 했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활동 좋지 않습니다.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왜
드러나지 않냐고요. 왜 안 드러났을까요? 담임 선생님이

모르시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안 해요. 이런 친구도 있어.

선생님 저 이거 하러 가요. 끝이에요. 담임 선생님 어,
열심히 해. 끝이에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활동을

하고 나서 사진도 찍고, 그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보세요. 아, 애가 이러한

활동을 했구나라고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걸 버리겠습니까?
차곡차곡 모아두시겠죠. 아니면 그날 바로

기록하시겠죠, 누가 기록으로. 그러면 당연히 이 학생은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멋진 이렇게 나오겠죠.

자, 2학기 학급 회장으로 학급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직접 알아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여기까지 쓰면 안 좋죠. 근거가 없잖아요. 뒤에 보세요.
각종 전달사항이 학급 친구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화이트보드에 직접 기록하고, 수행평가 전 날에는
학급SNS에 관련 사실을 언급하며 학급 친구들이

잊지 않도록 했다.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또
보세요.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이 시작되는 학급친구들이

서로 잘 융합되도록 노력하고 학급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했다. 여기서 끝나면 상투적이죠.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근거 제시합니다. 설문조사를 하기 초와
학기 말에 실시함, 이를 통해 학급친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학급운영에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보완해야 할 점을 조사하여 2학기 학급임원들에게

전달하였음. 개별화 보이잖아요. 아, 애가 그래도
학급회장으로서 뭔가 했구나 알 수 있겠죠.

이 빨간 부분이 있는 것과 없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없잖아요? 그냥 버리는 내용이에요. 한 줄입니다.

그냥 읽기만 불편하게 글자수만 채우는 거죠. 그런데 한
활동의 일반적인 거 나온 다음에 어떻게 이러한 활동을

했는지가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가 된다면 정말로
좋은 자율활동이 되겠죠. 이렇게 얻은 직책이 좀 더

어떻게 될까요? 빛이 반짝반짝 빛나겠죠. 후광이
비칩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죠. 제일 중요한 방법은

학기 말에 적어내는 게, 보통 학기 말에 많이 적어내요.
학년 말에 써내라고 하니까, 그땐 여러분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안 나가 때문에 그때그때 보고서를 써 주는
게 선생님들이 미리 적으실 거 아닙니까? 미리미리

기록한 글이요. 학년 말에 한꺼번에 기록한 글보다
훨씬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는

한 명밖에 적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기록을 하십니다. 어떤 단어를 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학년 말에 제출하잖아요.
기록하기가 바빠시기 때문에 어휘 선택에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으세요.
양질의 학생부가 나오기 힘들죠. 이것도 보세요.

학급의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서 '영어속담코너'를
게시판에 만들어서 수 차례에 걸쳐 다양한 영어속담을

게시하였다. 학급회장이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게 드러나잖아요. 이 활동은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알고 계세요? 당연히 이 학생이 그때그때마다
했고, 이 게시판에 붙이는 거 같은 경우는 맨날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활동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학급/학교 행사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 있습니다. 이런 행사에 참여만으로 500자를

채우겠다? 바보 같은 짓이죠. 500자는 짧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all이 아니라 impact를 골라야죠.

설사 자기가 굉장히 많은 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학생회
임원들 정말 많은 활동에 참여하거든요. 개네들은요.

단순 참여만 적어도 500자 넘깁니다. 그런데 그

500자 넘긴 게 의미가 있어요, 단순 참여가? 없죠.

다 적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취사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많은 활동에 온 힘을 다 기울여서 할 수는

없겠죠. 그냥 단순 참가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기획한 작은 이벤트가 있는 활동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이벤트를 만드셔야죠. 그런 이벤트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서 작성을 해야 되고요. 계획서 작성을 해서

그게 여러분들의 트레이드마크 즉,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누가 드러나야 되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드러나야
되니까. 학생부는 점점 정보의 홍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글자수는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로
그 줄어드는 글자수를 채우는 게 바람직해요?

바람직하지 않죠. 정말로 양질의 활동을 가지고 해서,
물론 양질의 활동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거를 그때그때

기록하고 이를 선생님과 소통을 통해서 양질의 기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이게 좋은 학생부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판은 깔아놨다니까요, 지금은요.

밥상까지는 차려줬어요. 어떤 반찬을 먹고 얼마만큼의
밥을 먹고, 어떻게 젓가락질을 하고 어떤 국을

먹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직접 먹어야죠. 차려주기만 했는데 먹지 않는다?

학중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행사참여. 보세요.
장애 학생 인권 교육에 참여하여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학교 안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소중히 대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인권의식을 함양하였다. so what? 그래서요? 뭐
어쩌라는 거죠? 다 하는 거잖아요. 아마 이런 기록은

여기에 참여한 학생이 모두 다 똑같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개인이 안 보이잖아요. 들어가 줘야죠. 이렇게

이후 외국인 노동자의 아이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관련된 기사를 조사하고 이를 학급게시판에 게시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 한 문장이 들어갔음으로 해서 아,
다르잖아요. 이 아이가 이 활동에 참여만 한 게 아니라

뭔가 생각을 가지고 참여를 했고 그 이후에 이런 활동을
했구나라고 평가자는 판단하겠죠. 자, 이것도 보세요.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잖아요. 흡연, 음주,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다 보시면 길기만 하지 정말로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학생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학생이 이걸 다

듣는 건데 자기가 의학 쪽, 보건 쪽, 제약 쪽에 관심이 많은 친구예요. 그러면 해야죠, 활동을. 이런 것들은

다 미리 고지되니까 그거 하기 전에 발표자료를 만드시면 되겠죠. 특히 오남용 되는 약물의 순위를 조사하여

친구들에게 소개하였고, 이를 통해 항생제의 남용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였다. 개인이 드러나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4줄이고 2줄이지만 이것보다는 이 2줄이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거 할 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다 빼달라고 하셔야 돼요. 나중에 확인할 때,

빼고 이것만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자율활동은요. 양이 그렇게까지 많으면 안 돼요, 활동 자체가.

너무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활동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의 일반적인 부분은 거의 다 똑같은 거거든요.

다 빼야 돼요.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거를 빼주고 이 부분만 남겨달라고 여러분 선생님께

정중하게 부탁을 하면 빼주십니다. 추가하는 게 좀 힘들지, 그리고 이게 부정적인 평가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평가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빼달라고 부탁을 하면 빼주실 거예요, 선생님은요.

이것들보다는 개인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 위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채우셔야 됩니다.

자, 얼마나 멋지십니까? 2학년 때 사회적 기업 모의 경영을 한 것을 계기로 교내 K-MOOC 학술활동을 통해

아시아 미래 기업 포럼에서 강연한 '○○○○' 기업 대표의 연설을 들음. 보통은 이제 이렇게 많이 적어요. 그렇죠?

진로특강 같은 거 들을 때. 여기서 많이 끝납니다. 또 이렇게 저는 외치겠죠. so what? 어찌라는 거죠?

듣고 끝이잖아요. 이런 활동은 전혀 가치가 없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감회가 있다든가 어떻게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해야죠. 이후 사회적 기업 아름다운

경영 이야기에 대한 K-MOOC 강연을 통해 국내 사회적 기업의 유형 및 마케팅 전략, 사회적 기업가의

리더십에 대해 탐구하며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을 창업한다면 어떤 사람을 고용하고 어떻게 기업을 운영할

것인가? 좀 길어요. 라는 주제로 학우들에게 토의를 제안하였음. 그렇죠. 이런 활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토의에서 이러이러한 기업과 같이 장애인 고용을 통해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

코즈마케팅을 경영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학우들과 공유하였다. 한 개의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연달아서 후속 활동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후속 활동의 내용이 어때요? 굉장히

전공적합성이 드러나요. 이 학생은 분명히 상경계열
경영학과에 지원을 했을 겁니다. 자율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전공적합성이 정말로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기재입니다. 애가 다른 거 말고 이거

하나만 있어도 앞에 있는 이런 애들보다, 이런 애들보다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의 활동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중요하다고요?

질, 엄밀히 얘기하면 개인의 활동이 드러나도록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사전조사 하셔야 되고요. 내가 저 시간 때 어떠한

활동을 할 거고 그 활동이 끝난 다음에 후속 활동으로
무엇을 할 건지 고민하셔야 돼요. 특히 엄청나게 많은

시간 HR과 ~교육시간. 절반 이상이 자요. 그렇죠?
자습합니다. 그 아까운 시간을 자습하고 잡니다.

판이 벌어져 있는데 자요. 학종으로 갈 생각 없다는
거죠. 이런 활동 활용하셔야죠. 애들이 안 하는

활동이잖아요. 차별화의 단초입니다. 제가 매 시간
얘기하거든요. 학교에서도 얘기하고 제가 강연 갔을 때도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이런
시간에 활동을 안 해요. 왜? 연간계획을 안 봐요.

이런 계획은 학교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학교
교육계획서 다 올라와 있어요. 학부모 총회 자료,

신입생 OT 자료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학교에서 알려주는 건 보통 일주일 전에 알려주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오늘 금연교육이 있어.
애들은 어! 오늘이야? 아, 어떡하지? 발표해야 되는데.

에잇 몰라. 이럽니다. 고지됐다니까요. 언제요? 학기
초에 고지가 돼요. 이런 연간계획표를 보고 교내 대회

준비하시고 이런 교육시간 보셔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야죠. 그리고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선생님, 저 발표해도 될까요? 이러고 말해야죠. 어느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라고 하죠. 그게 바로

뭔니까? 정말로 확실적으로 기록돼서 문제가 많은
자율활동을요. 어떻게? 개별화되고 정말로 멋진 자신만의

장점이 있는 파트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교육시간 꼭 이용해주세요. 자신의 진로와 연계된

발표하기 정말 쉽습니다. 그렇죠? 딱딱 주제가 정해져
있어요. 금연교육, 성교육, 학교폭력교육 얼마나

소재한 다양합니까? 자기의 진로와 연관된 거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든 연결시키면 돼요. 그렇죠?

금연교육입니다. 화학과 나올 수 있고요. 상경계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교육과 당연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AI 관련될 수 있습니다. AI가 금연교육 같은
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AI 같은 경우 만약에 길거리

금연단속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금연단속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 찾아보면 많아요. 이런 거 조사해서

발표하면 됩니다. 그냥 보통 금연교육 비디오 시청하고
자습하거나 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사발표

하잖아요. 애들 안 자요. 다 그거 봅니다. 애들 참
특이해. 선생님이 하거나 무슨 교육 나오면 자는데

자기 친구들이 발표하면 다 깨서 봐요. 이런 거 활동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율활동. 담임교사와의

소통해야 되죠. 왜? 자율활동은 누가 써주는 거니까?
담임선생님이 써주는 거니까 당연히 계획안 만드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담임교사와 소통해야겠죠? 이런
활동을 하겠다. 그런 다음에 진행하고 기록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고서 제출하고 이와 연결된 후속
연계활동 해주시면 정말로 학생부는요. 말 그대로

스토리를 갖춘 그런 학생부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런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율활동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Ctrl+C, Ctrl+V된
자율활동을 갖게 돼요. 물론 선생님의 책임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학생부를 만드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면요. 학생부 절대로 좋은 학생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게시판에 최대한 활용해라.

활용해야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게시판이야말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게시판입니다. 누구나 사용

가능해요. 나눔의 장터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전공적합성을 홍보하는 그런 장이 되기도 합니다.

나의 광고판으로 만드셔라. 이거 다 쓰라는 거
아니잖아요. 한 칸만 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식지를

만드시면 됩니다. 나의 전공과 관련된 내용을 나눔
하는 자리를 하셔도 돼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탐구활동의 보고서 게시판으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러한 것들은 더 이상 자량이 아니에요.

올려놓는다고 해서 욱하지 않습니다. 너 재수
없어라고 말하는 친구 없어요. 오히려 부러워하죠.

같이 하자라고 손을 내밀 겁니다. 자, 이런 게시판을
활용하는 거는요. 자랑이 아니라 공유이자 나눔이에요.

활동의 결과물을 자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만 보여드린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친구들과 같이 나눠야죠. 나누면 협업의 공간이
생깁니다. 자기가 부족했었던 면을 다른 친구들이 와서

도와주기도 해요. 이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이
점점 확대가 되겠죠. 이런 활동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은 진짜로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어요.
아셨죠? 두 번째입니다. 동아리활동. 동아리활동은

많은 친구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창체 중에서 그래도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많은 친구들이 그래도 줌

볼만한 공간이 동아리활동입니다. 동국대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공과 관련한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좀 더 폭넓고 유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공과 동아리틀요. **100%** 딱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게 동아리가 여러분이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다 이것도 감안해줍니다. 굳이 **100%**

일치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 동아리활동을 함으로써
뭔가 얻어서 자기가 성장하면 그거로 족한 활동입니다.

학종 **101**가지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의미 있는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의미 있는
경험이죠. 바꾸어 얘기하자면 제가 자율활동 할 때

얘기했던 게 똑같은 게 나와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개별화를 해야 됩니다. 동아리도 결국에는 동일한

활동에 대해서 여러 친구가 동시에 작업을 하는
공간이잖아요. 개별화가 되지 않으면 결국 그 동아리를

기록하는 **500**자 칸은요. 여러분에 대한 홍보의 장이
아니라 동아리를 홍보하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학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자, 동아리활동입니다.
전공연계성을 보여줄 수 있죠. 당연히 보통 많은

아이들이 전공을 생각하면서 동아리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공과 **100%** 연관이 없더라도 어떻게든 간에

자기가 그걸 선택할 때쯤 갖고 있었던 어떤 관심사와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서

어떻게 보면 동아리활동이 그 학생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점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 자기가 선택한 활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아리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활동을 이 500자라고 하는 공간이 다 못 담아요. 못 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아리활동이 굉장히 읽어보면 무미건조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활동 자체가 많아요. 많으니까 선생님들이

주관적인 내용은 다 빼고 팩트만 적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관적인 면이 좀 부족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디서 풀면 됩니까? 자기소개서에서

풀어주면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동아리는요. 굉장히 창체 활동 중에서는 그나마 개별화가 많이 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활동에 비해서 글자수가 굉장히 적어요. 적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걸 중심으로 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아리활동란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동아리가 아닌 나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동아리 같은 경우는 보통 많은 선생님들이 관찰한 모습도 적기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활동한 내역서를

많이 받으세요. 그걸 바탕으로 기재를 하시는데 이걸 할 때 어떤 걸 조심해야 됩니까? 활동 위주가 아니라,

동아리 활동 위주가 아니라 여러분 중심으로 판을 짜줘야 됩니다. 어떤 행사 중심이 아니라

행사의 중심의 축을 여러분 자신으로 바꿔야 돼요. 동아리활동 중에서 어떤 축제가 있다. 축제가 주가 되면

안 됩니다. 축제 내에서, 축제가 뭐 어떤 행사인지 설명이 아니라 축제 내에서 어떠한 활동을 내가

의미 있게 했는지를 좀 어필해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는 정규동아리. 보통 우리가 상설동아리이기도 하고

정규동아리이기도 한데 여기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래서 만든 게 자율동아리거든요.

그런데 이 자율동아리가 원래 동아리 자체가 수업과는 좀 다르게 선생님이 100% 관찰을 못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자율동아리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고 진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2019 학생부

개정에서는요. 자율동아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30자 이내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아리의 어떤 중심축이 예전에는

정규동아리와 자율동아리가 많이 해서 5:5까지

비중을 차지했다면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동아리의
측은 정규동아리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죠. 보통 몇 년 이상 된 동아리다
보니까, 그리고 교사와 선배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교사, 교사 같은 경우는 보통 자기가
만든 동아리를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죠.

그리고 다 스케줄 짜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1학년이 아니라 보통 2학년에 많이 운영을 하죠.

작년도에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활동 내에서의 굉장히 역할이

협소합니다. 하지만 협소하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건
아니죠. 협소한 가운데에서도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만의 역할 찾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자신만의 작은 이벤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즉,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에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걸 만드셔야 돼요. 아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율동아리
자체가 굉장히 축소됐기 때문에 정규동아리의 비중은

아마 커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다음 볼까요? 그다음은 자율동아리 보세요.

자율동아리는 굉장히 다양성이 풍부하죠. 학생이 스스로
만든 거니까, 이게 최대 장점이었어요. 그리고

정규동아리에 떨어졌다고 해서 아이들이 이전만큼
울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만들면 되니까, 그런데

1학년부터는 자율동아리 비중이 굉장히 축소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1학년은 또 많이 울기 시작합니다, 동아리

떨어졌을 때. 학생의 역할이 크죠. 자율동아리는요.
자기 스스로 만들고 기획하고 진행하는 거니까.

보통 학교당 다르기는 하지만 20차시 정도가 운영이
돼요. 굉장히 착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스스로 만들다 보니까 경험이 없잖아요.
시행착오가 많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자율동아리를

하다가 깨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어떤 학교에서
정한 기준에 충족을 못해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부에 기재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니다. 그래서
자율동아리 같은 경우는 정규동아리를 보완하는 거로

좀 생각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정규동아리가 만약에
전공적합성이 큰 동아리라면 자율동아리는 여러분들이

좀 약간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관심사 위주의
동아리가 좋습니다. 독서부도 괜찮고요. 아니면 어떤

스터디 그룹도 괜찮아요. 만약에 정규동아리에 자기가 하고 싶은 동아리에 탈락을 했어요. 그러면 전공적합성이

굉장히 좀 떨어진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하겠죠? 그런 친구라면 자율동아리는 전공적합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동아리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렇죠? 어떤 PD가 하고 싶었던 친구가 방송반에 떨어졌으면

자율동아리는 어떤 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내용을 짜면

되겠죠. 그래서 정규동아리랑 자율동아리가 모두 다 전공적합성을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둘 중의 하나만

보이면 돼요. 물론 2개 다 보여도 되기는 하지만 정규동아리든가 자율동아리가 어느 하나가 만약에

전공적합성이 높으면 다른 하나 정도는요. 여러분들이 좀 하고 싶은 걸 위주로 해도 상관이 없을 거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율동아리는요. 이전과는 다르게 올해 1학년부터는 30자 이내로 줍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제일 커요. 동아리 설명만 들어가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대학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요. 학급 자랑, 학교 자랑, 동아리 자랑이에요. 정규동아리는 동아리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 다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활동 적기 바쁘기 때문에 동아리에 대한 설명이 거의 안 들어가요.

대신에 이제 동아리명만 봤을 때 좀 애매한 것들은 써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율동아리는 무조건 뭐만

써야 돼요? 동아리에 대한 설명만 써야 돼요. 뭐가 안 보여요? 개인이 안 보입니다. 개인이 보이지 않는

학생부는 뭐라 그랬어요?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율동아리가 굉장히

입지가 줄어들 겁니다. 대신에 자율동아리 활동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거든요. 저희 학교만 하더라도요.

20시간을 해야 돼요, 1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죠. 그런데 기록되는 거는요. 30자밖에 안 돼요, 그것도

동아리 설명이요. 자신의 모습이 안 나오죠.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항목에 드러나도록 해야죠.

동아리활동인데 다른 데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죠. 어떻게 쓰면 됩니까? 동아리활동이라고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했잖아요. 동아리활동에서 뭔가 조사했을 거 아녜니까? 그런데 여기는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적으면 됩니까? 이게 만약에 전공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전공과 관련된

주제를 갖고 있는 교과 시간에, 그 단위 시간에 발표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조사하고 남는 보고서

버릴 거예요? 활용해야죠. 어떻게 활용하면 돼요?
이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교과를 찾아요. 그리고

그 교과 중에서 특정 단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주제와 관련된 그거를 하면 되죠. 아니면 무슨 시간?

자율활동시간, 진로활동 그렇죠? 진로활동에 기재가 되도록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담임선생님과 소통하고요. 발표하겠다고 하세요.
곧이 자율동아리 활동을 한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이 내용을 조사해서 발표하겠다고 하면 되죠.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지 그거를 동아리란에 못 적으니까

수업 시간이라든가, HR시간이라든가, 진로시간에 발표를 하겠다는 거죠. 한 거잖아요.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율동아리가 만약에 탐구활동 동아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제 설정을요.
교과서 내에서 찾으면 되죠. 찾아서 그걸 가지고

친구들과 자율동아리 내에서 탐구활동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결과물은 선생님과 수시로 소통하고

보고하고 최종 산출물을 만들고, 발표를 하면
교과세특에 적힐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양질의 내용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30자 이내 굉장히 단점이지만, 가치가 하락하지만

이런 내용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은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동아리활동 잘 해오고 계십니다. 하지만 좀 더

전략적으로,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좀 더
멋진 동아리활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은 딱 보시면 나오잖아요.
정량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뭐예요?

평가요소가 없다는 거죠. 물론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비율 있죠?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적을뿐더러 평가의 점수 차이도 거의 없겠죠. 어떤
아이가 자기소개에 난 못됐어요. 어떤 선생님이

학생부에 이 아이는 못돼 먹었습니다라고
적어주시겠습니까? 다 웬만하면 착하다고 적어주십니다.

차별화가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봉사활동은 평가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평가를 안 하지는 않으니까 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요.

본인의 자발성과 지속성이 있으면 긍정적인 평가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는 뭘니까? 기본 점수가 나간다는

겁니다.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예요.

그렇죠? 그냥 봉사활동이니까. 왜냐하면 봉사활동에서 굳이 전공적합성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영역에서 찾을 수 있잖아요. 봉사활동에서 학업역량을 찾을까요? 아니죠. 교과세특과 점수와 다른 활동에서

찾으면 되잖아요. 봉사활동은 순수하게 학생의 인성을 측정하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만약에

전공적합성이 들어가면 +a라는 거지 그 +a도 그렇게 비중 크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봉사활동 당연히 양보다는 내용이에요. 특히 1학년부터는 봉사활동 특기사항에

적지가 않죠. 그냥 봉사활동 내역만 들어갑니다. 봉사시간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요즘 대학들은요. 봉사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지는 않아요. 자, 교내활동이 좋을까요, 교외활동이

좋을까요? 예전에는 교외 봉사활동이 좀 더 좋았는데 요즘은 교내봉사에 대해서도 대학이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믿는 거죠. 학교에서 예전에는 청소만 해도 봉사시간 줬는데 그게 요즘은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아, 학교에서 주는 봉사시간도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교내 봉사활동, 교외 봉사활동 어느 게 더 좋냐라고 하는 건 이제는 좀 우열을 가리기 힘듭니다.

대신에 교외봉사 같은 경우에는 어떨 수 있을까요? 지속적이면서 그리고 뭔가 자발적이고, 자기의 어떤

그런 면이 드러나 보이잖아요. 그런데 학교 봉사 같은 경우에는 지속성이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일치성이라고 해야 되나? 연관성이 떨어지죠. 다 일회성, 이벤트성 봉사활동이 많으니까, 하지만 교외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지속성, 꾸준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더 좋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는 않아요. 아까 얘기했었죠. 전공과 진로와의 연계성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있으면 좋아요.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있어도 좋다고 하는 건

없다고 해서 크게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연속적이어야 되고요.

지속적이어야 되고, 마지막 진정성이 느껴져야 돼요.
즉, 뭘니까? 단지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여기저기에서 끌어모은 300시간보다는 꾸준히 1, 2학년,
3학년까지 지속해서 하고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매달 가고 그렇죠? 그리고 이 내용들이 어떤 마음이
자기소개서에 드러난다면 비록 100시간을 했다

할지라도 300시간짜리 봉사활동보다는 더 가치있다고
대학은 평가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봉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고민할 거는 이것만 고민하시면 돼요.
연속적이어야 되고, 지속적이어야 되고, 진정성만

갖추면 된다는 사실만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진로활동입니다. 진로활동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활동 자체가 이 학생들의 어떤 미래의
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여러 가지

진로활동에서 희망진로와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고자
하는 거죠. 특히 1학년 같은 경우는 진로희망란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진로라고 하는 면을 보기 위해서는
진로활동에 좀 주목을 할 겁니다. 자, 학생부의

다른 영역과도 연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진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학교에서는요. 지원자의

지원동기라든가 진로계획을 추정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로활동은 그 어떤 창의적 체험활동보다도

학생의 진로, 그리고 학생이 어떠한 것에 관심이
있는지가 그대로 투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학생들의 진로활동을 보면 학교에서 주최하는
진로특강이라든가, 강연이라든가, 전공체험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많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뭐예요?

동일한 행사에 동일한 내용이 많은 아이들에게 기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라면

평가 자료로서의 가치는 없는 거죠. 모든 학생이 다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한 참여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단순한 참여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는 것 중의 하나가

진로활동입니다. 자율과 비슷해요, 성격이. 자율보다
더 심하죠. 자율은 보통 학생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일단 정해져 있는 코스에서 활동하는
거니까, 그런데 진로활동은 학생들이 직접 신청을 하고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발성이 큼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만족을 하는 거야. 내가 직접 신청해서

들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나의 진정성을 알아주겠지?
알아주지 않습니다, 대학은요. 자기의 진로가

선택한 것만으로 표현이 안 돼요. 그렇죠? 이것을
들음으로써 어떻게 여러분들이 변화를 보이고, 이것을

듣고 나서 자기의 진로 설정을 위해서 어떤 활동이
후속으로 이어졌는지를 알려줘야죠. 그게 바로 뭐니까?

진로활동이라고 하는 거죠. 진로활동은 선택하기 전에 왜
내가 이 진로특강, 이 강연을 듣는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써놔야겠죠. 그리고 어떤 진로특강 같은 경우에는
이 진로특강 하시는 강사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분야에 대한 사전조사를 해야 돼요. 왜? 질문
거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끝나고 질문하라고 하거든요.

대부분의 많은 아이들은 진로특강이 끝나고 나서 집으로
가기 바쁩니다. 그 분야의 대가가 와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시간 쪼개가면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당연히 교과서라든가 TV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이 나오겠죠. 얼마나 듣고 싶은
내용입니까? 여러분의 진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이

와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런데 질문도 안 하고
가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순간입니까? 질문거리를

만드셔야죠. 그래서 질문하셔야 돼요.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일종의 피드백 작업이 나오는 거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특강을 듣고
나서 무슨 활동을 할 건지를요. 고민하게 돼요.

이러한 것들은 다 뭐가 돼요? 진로특강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다 완성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로특강, 진로활동을 하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제 들었어요, 이런 활동을 다 하고.

당연히 이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겠죠? 결과보고
제출해야 되죠. 제출을 하는데 제발 복사하고

제출하세요. 사본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원본 파일도요. 폴더 만들어놓고 다

모아놓으셔야 돼요. 입시설명회 많이 듣죠? 많은 학교
같은 경우는 1년에 10번도 듣습니다. 제발 이거는

진로활동에 쓰지 마세요. 진로활동인데 입시설명회
듣고, 자기소개서 특강 듣고, 수시설명회 듣고.

그게 중요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진로활동의
고민이 느껴지십니까? 입시가 무슨 진로활동입니까?

입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입시 특강, 자소서 특강은요.
진로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스킬을 알려주는

거예요. 정보제공입니다. 진로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것도 그냥 다 빼세요. 설사 선생님이 적어주셨다 하더라도 빼달라고 말씀해주세요. 자리만 차지하는

녀석입니다. 더군다나 입시설명회 설명은 다 Ctrl+C, Ctrl+V입니다. 과감하게 없애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사전, 듣기 전에 어떠한 활동을 할 건지 고민하라 그랬어요. 듣고 난 다음에

당연히 그 활동을 직접 하셔야겠죠. 가장 만만한 독서하든가, 교과 시간에 발표한다든가,

자율활동과 연결해서 발표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활동이 이제 진로활동란에 기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개별화가 보이고요. 이 학생이 그 학생이 갖고 있었던 진로에 대한 고민을요. 평가관들이 알 수가 있게

돼요. 단순한 진로특강 참여는요. 정말로 뭘니까? 여러분의 진로활동을요. 뭔가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글자수만 채우는 진짜 소위 얘기하는 버리는 공간이 돼버립니다. 반드시 진로활동을 하기 전과

한 후에 여러 가지 활동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진로활동 내에서의 차별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활동이에요. 창의적 체험활동은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자·동·봉·진 이 활동은요.

절대로 단체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누가 들어가야 돼요? 이 활동을 함으로써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이러한 모습은요. 여러분들이 기록, 사전조사, 수많은 질문거리 생성, 그리고 이후에

후속 활동으로 뭐 할 건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선생님의

기록에 남겨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창의적 체험활동 글자수만 채우는 그런 공간으로 전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누가 한다고요? 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학교와 선생님은 판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창의적 체험활동은 이미 다 판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판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게임을 하느냐는 여러분들이

아주 차근차근 고민해보면서 시스템적으로 완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창의적 체험활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7장 나만의 학생부 만들기 창의적 체험 활동편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